

2023. 3. 1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2133-8547
금융투자정책팀장	정경란	2133-5309
디지털금융팀장	오혁준	2033-5240
투자유치팀장	김윤정	2133-4760
담당 (통합 홍보)	김남지	2133-5244
담당 (시티오브런던 면담)	이지연	2133-5251
담당 (런던 컨퍼런스)	조예지	2133-4765
대표	구본희	02-6361-4120
글로벌기업지원팀장	정재선	02-6361-4121
누리집 : http://www.investseoul.org		

담당부서 : 서울투자청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7매

오세훈 시장, 런던에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 비전 발표...투자유치 총력

- 14일(화), 런던증권거래소서 서울 금융 비전 발표...‘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 주제
- 국제금융중심지 여의도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혜택 및 인프라 구축 등 인센티브 제시
- 외국투자유치 및 서울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위한 서울투자청-런던증권거래소 업무협약
- 오 시장, 런던금융특구시장 초청면담서 영국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독려

오세훈 시장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금융사가 밀집되어 있는 국제금융도시, 런던을 찾아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 전도사로 나섰다.

-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사가 모여있는 유럽 금융의 심장, 런던에서 서울의 투자유치 환경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원 의지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전한다는 목표다.
- 오 시장은 14일(화) 10시 50분<현지시간>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3 LONDON Conference: Startups from Seoul」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의 비전을 발표했다.
- 기초연설자로 나선 오 시장은 서울이 세계적으로 높은 디지털 금융사용률과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점을 설명하며, 디지털 금융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임을 강조했다.
 - ‘2023 LONDON Conference’에는 런던증권거래소 대표인 줄리아 호겟(Julia Hoggett)을 비롯해 런던의 주요 유관기관, 현지 투자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 또한, 오 시장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 ▲외국인 금융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며,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이 서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 런던금융특구처럼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에는 금융감독원과 28개의 대형 증권사, 투자금융회사가 밀집되어 있다.

□ 이후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 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5개사(▲호라이즌테크놀로지 ▲아이지넷 ▲에이젠글로벌 ▲모인 ▲자비스엔빌런즈)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투자유치를 지원사격했다.

- 호라이즌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AI) 기반 증권 분석 솔루션인 퀀트랙(Quantrack)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22년 서울시 주관 실리콘밸리 금융 IR에서 글로벌 VC Plug&Play로부터 프리시리즈A¹⁾를 투자 유치 받은 기업으로 추가 투자유치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 아이지넷은 누적중개액 3,000억원에 달하는 인공지능(AI) 보험 진단 서비스 '보닥(보험닥터)'을 개발한 인슈어테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에도 1,600억원의 최고 중개액을 경신한 데 이어 현재도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수성하고 있다.
- 에이젠글로벌은 인공지능(AI) 기반 크레딧커넥트(CreditConnect)를 기반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이커머스, 전기차 배터리 금융을 누적 2조원을 실행한 금융 인공지능(AI) 전문기업으로, '22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국무총리상 및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한 전문 핀테크 기업이다.
- 모인은 기존 은행 대비 90% 이상 저렴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현재 47개국에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을 포함한 유럽으로는 실시간 송금을 제공하여 이 지역 수출입 업체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 자비스엔빌런즈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한국에서 최초로 개인 세무 자동화 서비스 대중화를 끌어낸 혁신 스타트업으로 영국 정부의 세계 스타트업 지원 대상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영국 세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투자단계는 크게 시드머니>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단계. 프리 시리즈 A는 창업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구축하는 단계에서 받는 '시드투자'와 본격적인 시장 공약 직전까지 받는 '시리즈 A'투자 사이의 투자

- 이날 현장에는 모건스탠리, JP모건, UBS, 슈로더, CLSA 등 주요 투자운용사, 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업별 1:1 미팅 상담을 진행했다.
- 시는 설명회 이후에도 해외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투자청에서 세무,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전문가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솔루션 제공 등 투자유치 관련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앞서 서울투자청에서는 5개 기업별 영국 시장 맞춤형 전략 수립 등 컨설팅,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 교육 등 사전 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 아울러, 서울투자청과 런던증권거래소는 서울 기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유럽 자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진행했다. 향후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런던 중소기업 전문시장(AIM 등) 등에 상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대체 투자 시장) : 1995년 런던증권거래소에 설립.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자본과 연결하는 역할 수행하며, 상장규정, 거래감시 및 시장의 공정성 보호 등에 대해 런던증권거래소가 담당 (상장기업 : 821개사)
- 이어 오후 17시<현지시간> 금융중심지 런던의 산실인 런던 맨션하우스(Mansion House)를 찾아 니콜라스 라이언스(Nicolas Lyons) 런던 금융 특구 시장(Lord Mayor)과 면담했다.
 -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는 런던의 금융중심지로서 런던타워에서 세인트폴 대성당까지 2.9km² 구역을 의미한다. 이날 면담은 니콜라스 라이언스(Nicolas Lyons) 런던특구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 런던금융특구 소재 금융기업에서 유럽연합의 하루 외환거래의 80%(2.73조 달러=약 3,095조원), 세계 주식 및 파생상품, 선물 거래의 50% 이상이 발생한다.
 - 런던 맨션하우스는 런던의 도시 궁전이자, 런던 금융특구시장 공관이다.
-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의 투자유치 환경과 디지털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전하는 한편, 해외금융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오피스를 운영 중인 만큼 영국의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서울 진출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 마지막으로 18시 30분<현지시간>에는 주영대사관 관저 만찬장에서 진행된 ‘주영 한인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주영 한인 경제인을 격려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경제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한편, 오 시장은 13일(월) 15시 30분<현지시간> 런던시청을 방문해, C40 의장인 사디크 칸(Sadiq Khan)런던시장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이번 편담은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에 런던시장의 초청을 받아 런던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오 시장은 지난 1월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운영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이자 C40 부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 행사 개요

- 일 시 : 2023. 3. 14.(화) 10:30 ~ 14:00
- 장 소 : 런던증권거래소
- 주 최 : 서울시, 런던증권거래소(주관 : 서울투자청)
- 주요참석 : 서울시장, 런던증권거래소 대표, 현지 주요 투자자 등 60명
- 내 용 : 여의도 금융중심지 비전 제시, 핀테크기업 IR 등

시 간	내 용	비고
세션1 10:50~11:25	(개회사)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 기초연설	서울시장
	(답사) 런던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대표
	기업IR 오프닝	
	서울 유망 핀테크기업 1개사 피칭	
세션2 11:25~ 12:15	서울 유망 핀테크기업 4개사 피칭	
	투자자 총평 및 클로징	
	금감원 기관 및 런던사무소 소개(금감원)	
세션3 12:15~14:00	오찬 및 기업-투자자 네트워킹	

런던증권거래소

- ◆ 1802년 설립된 영국 최대, 세계 10대 증권거래소(22년 기준)
- ◆ 시가총액 \$3.07조원, 상장사는 총 2,342개로 영국 주요 기업 모두 상장
- ※ 삼성전자, LG전자, SK통신, 현대자동차 등 15개 한국기업 상장

《 런던증권거래소 대표 》

- ✓ 성명나이 : 줄리아 호갯(Julia Hoggett)
- ✓ 학 력 : University of Cambridge
- ✓ 주요경력: 現 런던증권거래소 대표
 뱅크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Managing Director
 영국 금융행위관리국 Director



붙임 2 City of London 개요

□ 행정구역 개요

- 지역개요 : 그레이터 런던의 33개 행정구역 중 1개
 - ※ 런던의 금융중심지로서, 런던타워에서 성바로 성당까지의 구역을 의미, 2.9km²
- 운영기관 : City of London Corporation
 - ※ 기관장은 Lord Mayor로 매년 11월 추천 후보에 대한 투표로 결정, 통상 1년 임기
- 소재기업 : UBS,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사들의 유럽 본사 소재지로서 5,000개 이상의 금융사 밀집
 - 유럽연합의 하루 외환거래의 80%(2.73조 달러=약 3,095조원), 세계 주식 및 파생상품, 선물 거래의 50% 이상이 시티 오브 런던 소재 금융기업에서 발생
- 주요명소 : 세인트폴 대성당, 바비칸 센터 등
- 유동인구 : 약 40만명 (총 거주인구는 1만명)
- 주요역사
 - 기원전 1세기경 형성(서기 43년 로마군 점령으로 시작) 됨
 - 원래 이름은 린딘(Lyndyn)이었으나, 로마인들이 론디니움(Londinium)으로 부르면서 런던으로 불리기 시작



- 특이사항
 - City of London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런던광역행정청이나 영국중앙정부에서 세무조사나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